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정례회는 부안군정의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의 군 정 sách을 결정하는 회기로써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33개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총 135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 2026년도 예산안을 부서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

이번 4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단 조성이 부안군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뒤 부안은 RE100 국가산단 유치의 핵심 요건인 친환경 전기 공급 기반과 전북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갖춘 만큼 “지금이 모두가 뜻을 모아 하 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건국유업과, '정읍 지향' 가공상품 명품화시동

정읍시가 지역 특산물인 지황을 활용한 전통 생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선진 기술을 도입했다.

시는 11일 소성면에 위치한 동지쌍화당에서 건국유업, 동지쌍화당과 함께 ‘정읍지향’ 가공상품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품질 고급화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정읍지향농복합사업단, 건국유업, 동지쌍화당 등 8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핵심은 건국유업이 축적해 온 생화 음료 제조 기술을 지역 업체인 동지쌍화당에 전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화 베이스 △생화차 △생화리페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과 레시피, 제조 매뉴얼 등 기술 일체가 이전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생활인구 도내 1위 차지

2025년 2분기 월평균 37만 6861명·체류인구 32만 7842명 기록

샤스타데이지 개화·부안마실축제 등 관광 콘텐츠 효과 반영

부안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2분기 생활인구 월평균 37만 6861명, 체류인구 월평균 32만 7842명을 기록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1~2분기 평균 체류인구 또한 도내에서 가장 많은 27만 7749명을 기록해 관광과 축제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전략의 효과가 생활인구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일 이상 특정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한 지표로 지역의 실제 흘러과 이동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단순한 인구 규모를 넘어 사람들이 어디를 찾고 머무르며 소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구

정책·관광·지역 축제·체험형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체류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큰 인기를 얻었던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지 개화 시기와 부안마실축제 개최 등 계절형 관광 콘텐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분석 결과 지난 6월 기준 부안군 변산면을 비롯해 흥천군 화촌면, 옥천군 옥천읍, 공주시 정안면, 담양군 담양읍, 청도군 청도읍, 함안군 군북면 등이 체류인구가 많이 찾는 읍·면·동으로 꼽혔다.

이는 자연경관과 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군의 체류형 관광 전략이 생활인구 지표를 통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해양·생태 관광자원이라는 기준 강점에 더해

꽃 관광·지역 축제·체험형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확보 방안 발굴·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부서별 생활인구 확대 전략 추진, 부안사람인 제도 운영, 한생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등 50여개 생활인구 확보 사업을 통해 관광·체류·재방문이 연결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군은 월평균 40만명 수준의 생활인구 유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체류형 관광과 재방문 구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0~30대 청년 층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생활인구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장, 도심 주차환경 전면 현장점검

시내권 유료 공영주차장 14곳 점검…회전률 제고·안전성 강화 지시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시내권 유료 공영주차장 14곳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즉각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도심 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풀어낸다. 좁은 출입구로 인한 진입 곤란, 만연한 불법 주정차, 낮은 주차 회전율 등 이용객들이 겪는 실제적인 불편 사항을 시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쌍화거리 인근의 각시다리 도심공영주차장을 찾은 이 시장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차량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구 모서리(각) 정비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탄력봉을 즉시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에서는 더욱 세밀한 개선책이 쏟아졌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학수 시장은 “도심 주차장은 아주 작은 미비점이라도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국 문제와 답은 모두 현장에 있다. 시민들이 변화를 과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도심 주차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당부했다.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이 시장은 수로 넓개를 추가로 설치해 좁은 출입구 폭을 넓히고 모서리 부분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주차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 인도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청년꿈터 주차타워 점검에서는 더욱 세밀한 개선책이 쏟아졌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학수 시장은 “도심 주차장은 아주 작은 미비점이라도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국 문제와 답은 모두 현장에 있다. 시민들이 변화를 과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도심 주차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촌 서비스 협약시범지역’ 최종 선정

고창군이 농립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류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적인 공동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2026년 상반기 서비스 공동체와 생활서비스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지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3·4분기에는 서비스 공동체와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종료 후에는 △수해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8개 동 순회 ‘현장 소통 간담회’ 대장정 마무리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의 시급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만남은 단순한 민원 청취자리를 넘어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

는 데 집중했다. 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에 무게를 뒀다.

현장에서는 상습적으로 얼어붙는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강화와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등 총 3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시는 건의된 사항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한과 취약지역 보완책 마련과 경로당 시설 보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홍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협약

고창군과 홍덕농협이 지난 10일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자 유태 국가 확정, 숙소 확보, 예산 편성 등 필수 준비 절차를 조기에 갖춰, 2027년 2월부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2024년 5월 남부권(대산면)에 전국 최초 기숙사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중부권(공음면), 2027년 2월에는 북부권(홍덕면) 기숙사 개소가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서부권과 읍내권에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군 전역의 농가에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공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창군은 지역농협과 연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해왔다.

백영종 홍덕농협 조합장은 “2027년 북부권 기숙사 개소와 함께 시작되는 사업인 민름, 북부권 농가에 숙련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인력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력 모델로 발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협 중심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숙련된 근로자 공급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북부권 기숙사 개소와 연계해 홍덕농협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북부권농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숙련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백영종 홍덕농협 조합장은 “2027년 북부권 기숙사 개소와 함께 시작되는 사업인 민름, 북부권 농가에 숙련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인력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는 접수된 30여 건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8개 동을 돌며 진행한 ‘2025년 동지역 통장단 현장 소통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과 주민을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속도는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